

『2014 서울사회적경제아이디어대회』  
최종결과보고서

■ 실행팀명 : 대표자 류광해 (인)

작성자 신은희 (인)

■ 확인자 : 센터직원 (인)

■ 예산

- 실행지원금 예산 3,500,000원

- 실행지원금 집행 3,507,040원

## 1. 실행팀 현황

<b>실행팀명</b>	밸류가든	<b>대표자명</b>	류광해
<b>실행 기간</b>	2014년 12월 5일 - 2015년 1월 31일		
<b>실행 지원금</b>	3,500,000		
<b>실행목적 및 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부터 공감역량을 키움으로서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li> <li>- 공감능력 결여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회관계역량을 회복하여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li> </ul>		
<b>실행과제 및 목표, 추진계획 요약</b>	<p>과제: <b>사회관계 역량을 높이는 유/초등 공감 교육 과정 개발</b>          목표: 유초등생을 위한 공감교육 과정 디자인 및 운영          추진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감관련 자료 분석(15종 이상 도서 등)</li> <li>2. 공감 전문가 세미나 진행, 5회</li> <li>3. 공감교육 적용 콘텐츠 활용에 도움되는 유사 콘텐츠 경험하기, 5회</li> <li>4. 공감교육 과정(가이드 라인) 개발</li> <li>5. 유아/초등/부모 대상 공감교육 시범운영</li> </ol>		

## 2. 추진실적 총괄

구분	계획	최종 실적	성과달성율
활동명	사회관계 역량을 높이는 유아/초등 공감 교육 과정 개발		
운영기간	2014.12~2015.1		
참여자 수	연구진: 주 1회 교육/회의	연구진 회의: 27회 진행 교육참가자: 5회, 45명	
세부성과목표	1. 공감관련 자료 분석(15종 이상 도서 등)	완료	100%
	2. 공감 전문가 세미나 진행, 5회	완료	100%
	3. 공감교육 적용 콘텐츠 활용에 도움 되는 유사 콘텐츠 경험하기, 5회	완료	100%
	4. 공감교육 과정(가이드 라인) 개발	완료	100%
	5. 유아/초등/부모 대상 공감 교육 시범운영	성인대상으로 진행. 이후 유아/초등/성인 대상의 교육 준비 중	100%
협력기관(기관명) 수		소프트유니브 심리상담공간 모모 이문회우(동물원인문학) 서울대공원	

### 3. 실행내용 및 세부추진실적

연번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및 실적
1 자료분석	공감교육자료분석	12/10 10:00-15:30 서울npo지원센터	6	다학제적 공감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공감의 정의, 구성요소, 관련 개념을 이해함 -자료: <공감하는 능력>, <공감학>, <공감의 심리학>, <공감의 진화학>, <공감의 본질과 형식>, <우리본성의 선한 천사>, <공감의 힘>
		12/18 13:00-16:00 서울npo지원센터	4	공감능력의 향상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 -자료: <사회적원자>, <타인의 고통>, <모멸감>, <공감제로>, <공감의 시대>, <공정의 배신>
		12/29 밸류가든	6	국내외 공감교육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로운 공감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 발굴 -자료: <공감의 뿌리>, <공감육아>, <인간관계의 필요충분 조건>
		12/31 카페온나	5	공감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 연구 -자료: 아쇼카재단 <start empathy>, <공감놀이 워크북>, 국제엠네스티 <인권친화학교 만들기 가이드북>, 국내 공감교육 관련 논문 (2000년대 이후, 12편)
	자체평가	<p>자료분석을 통해 공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시각과 전문성을 살펴볼 수 있었음. 이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해야하는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게 됨.</p> <p>실제 이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진행하기에는 일정상 무리가 있어 일반인,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제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독서모임, 학습모임의 형태로 확장 예정.</p>		

연번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및 실적
2. 전문가 세미나 / 자문	세미나1. 박성희 교수	12/8 13:30-15:30 /청주교대	2	공감의 이해, 공감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의 흐름을 들음. 그리고 서양심리학을 배경으로 시작되었지만 동양사상에서 주는 통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안해주심
	세미나2. 송은주 박사	1/14 14:00-16:00 /서울npo지원센터 1층	3	'공감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교육전문가 관점에서의 자문을 구하여 구체화해야할 지점에 대한 조언을 얻음
	세미나3. 송인혁 기획자	1/19 12:00-14:00 /서울npo지원센터 1층	3	시범운영 프로그램(공감의 정원)의 컨셉과 다양한 홍보방안에 대한 자문회의 진행
	세미나4. 김수정 박사	1/26 11:00-13:00	3	심리상담그룹 모모에서 번역하여 출간한 "그림책이 있는 철학교실" 도서를 활용한 치유가 있는 철학교실 이야기 나눔. 철학적 사고는 나의 본질을 찾아 묻고 설명하는 과정과 진행을 통한 경험 등 앞으로 공감교육에서 함께 확장할 부분 듣게 됨
	세미나5. 조진석 본부장	1/26 14:00-16:00 /씨드스쿨	4	공감교육과정의 모듈 개발에 대한 자문. 모듈의 연결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배우고 참고자료를 제공 받음.
	자체평가	박성희 교수님은 공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연구한 국내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고 그 분을 만나 공감에 대한 20여년간의 학문적 흐름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전문가를 직접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연말연초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만날 수 있었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실제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교육에 대한 방향과 틀에 대한 의견을 자문을 겸해 듣게 되었다.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번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및 실적
3. 콘텐츠 체험	공감교육 적용 콘텐츠 체험1: 게이미피케이션	12/11(목) 10:00-12:30 서울npo지원센터	7	'의미를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것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게임의 사례를 알아보고, 공감적 대화를 촉진하는 보드게임을 직접 체험함
	체험2: 창작을 통한 공감역량 높이기	12/12(금) 14:00-17:00 스페이스노아	6	다양한 창의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류재훈 강사와 함께 건강한 자기 공감의 방법으로서 '예술'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체험해봄. '자기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함.
	체험3: 드로잉히어로	12/18(목) 10:00-12:00 서울npo지원센터	5	청소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디자인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봄. '표현-공감-협력'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한 패턴을 도출함
	체험4: 손으로 만드는 공예활동	12/24(수) 10:30-12:30	3	손으로 직접 만들어 생산하는 즐거움을 통해 소비적 인간이 아니라 생산적 인간, 또 만들기 과정에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즐겁게 확보한다는 점에서 활용할 만함.
	체험5. 공간의 상상력	1/30(금) 10:30-12:30	8	공감교육이 진행되는 환경을 어떻게 공감적으로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도구 제작
	자체평가	교육은 결국 경험을 통해 기획되는 만큼 연구진들이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었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별도의 과정으로 체험을 함에 따라 체험과 더불어 공감교육의 적용, 활용에 대한 의견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		

연도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 인원	활동내용 및 실적
4. 대표유 참가	1. 동물원 인문학	12/16(화) 19:00-21:30 서울대공원	2명 /60 여명	동물원에서의 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있는 인문협동조합에서 진행한 포럼. 과거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적 사고, 인간의 우수함을 설명하기 위해 대립적으로 동물을 표현한 미학의 역사에서부터 실제 학문으로 발견되는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 동물을 통한 공감교육의 필요와 가능성 발견함.
	2. 어둠속의 대화	12/21(일) 18:30-20:10 어둠속의대화	2명	훌륭하게 디자인 된 '체험형 전시'에 참가하여 공감교육의 중요한 테마인 '다른 사람 되어보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음
	3. 물입의 순간 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나	12/22(월) 19:30-21:30 가톨릭청소년회관	1명/ 200 여명	개인의 자발성과 내적동기의 강화가 자연스럽게 집중과 몰입으로 유도하여 교육 등에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이끌어낸 강의임.
	자체평가	교육참가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 진행 일정이 촉박하여 좋은 교육도 시기상의 문제로 인해 참가 어렵고, 필요한 부분이나 이미 마감되었거나, 다음 계획은 프로젝트 수행 이후라 위키서울 프로젝트 수행기간중에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그러나 가능한 부분들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다.		

연도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 인원	활동내용 및 실적
5. 교육과정개발	공감교육과정 (가이드라인 개발)	1/ 6, 카페온나 1/ 7, 스타벅스 1/ 8, 가또마들렌	3 4 4	프레임 워크 공감교육의 기본 자료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단계와 각 단계에서 공감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워크숍을 포함하여 기술함. 앞으로 각 워크숍에 대한 세부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토론하는 시간 가짐. 이 내용을 기본으로 자문을 받아보기로 함.
	공감교육 디자인워크숍	1/ 9, 시민청 1/18, 스타벅스 1/20, 수카라	4 2 4	공감교육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들이 관심 갖는 대상과 방식을 통해 실행해보기로 함. 이 과정을 통해 참가자 분석과 실제 공감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고 그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공감의 정원 세부계획논의	1/19, 스타벅스	3	내 일상을 공감하는 일주일(류재훈tr) 세부진행 논의 및 진행시나리오 점검. 필요물품 확인 등 준비진행
	자체평가	과정개발에 앞서 교육전체 프레임, 운영 원칙등을 정리하는 시간이 매우 의미 있었고, 한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공감교육 디자인워크숍은 충분한 시간을 바탕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내용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실행을 통한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연구진이 함께 고민한 부분은 특별한 과정으로 만들어 그럴듯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기대한 변화 전체를 얻어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성찰이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운동으로 그러한 분위기, 환경을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먼저 선행될 필요에 대한 공감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대상과 그 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디자인하여 확장하는 것은 그 다음과제가 되어 올해 준비/실행하게 될 것이다.		



번호	일정명	일시/장소	참여 인원	활동내용 및 실적
6. 공감의 정원	1. 내 일상을 공감하는 일주일 (전문가세미나)	1회: 2014. 1.23 (금) 19:30-21:30 /카페온나 2회: 2014. 1.30 (금) 19:30-21:30 /밸류가든	9  8	타인의 걸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고유한 존재'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일상수집과 예술 창작활동을 활용한 워크숍을 2회에 걸쳐 진행하고 전시회를 개최함
	2. 대화의 식탁	2014. 1. 29(목) 19:30-22:00 /밸류가든	13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대화 이벤트' 개최. 참가자들의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이후 정기 행사로 진행할 예정
	3. 공감교육 낮설게 보기	2014. 1. 30(금) 14:00-17:00 /밸류가든	4	'공감교육'은 우선 기존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주제의 강의와 함께 교육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 진행
	4. 행동하는 공감 (전문가세미나)	2014. 1. 31(토) 18:00-20:00 /밸류가든	11	'기생충과 국제개발'이라는 주제로 기생충학 연구자 정준호 씨를 연사로 초대하여 토크쇼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함.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와 형식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자체평가	<p>실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이러한 과정에 관심갖는 분들의 성향을 체험할 수 있었다.</p> <p>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의도가 왜곡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확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p> <p>대화의 식탁의 경우,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이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한 사람을 만나 깊이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픈테이블과 같은 소그룹 대화가 아니라 1:1로 기획한 것은 그러한 이유이다.</p> <p>외부에서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상의 기술과 철학을 담아내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다양한 현장에서 대화의식탁이 열리되, 그 안에 원칙, 질서, 색깔이 분명히 녹아나서 유지되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 그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하면 가벼운 대화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p>		

#### 4.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 인쇄물, 포스터 등의 성과물은 3부를 제출할 것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공감교육 가이드라인		1	내부문서로 활용예정. 공유회에 사용
2	공감의정원 안내문 5종	공감의 정원 내 일상을 공감하는 일주일 대화의 식탁 공감교육, 낯설게보기 행동하는 공감	각 3부	
3	동영상	Empathy의 일곱단어	1	

## 5. 실행팀 실행 운영방식

### 1. 모임

공감에 대해 관심 있고, 공감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있는 다양한 개인 섭외  
- 나눔교육, 예술교육, 장애인식교육, 자원봉사교육, 기업교육/컨설팅 등

### 2. 운영

#### (1) 공감에 대한 이론적 학습

- 자료분석
- 전문가세미나

#### (2) 공감에 대한 체험적 학습

- 교육기획은 기획자 역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연구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참가. 외부 개설 교육 참가 또는 직접 진행자를 초대해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관련 콘텐츠를 체험해보고 공감교육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함.  
- 예: 교육참가, 콘텐츠 체험

#### (3) 공감교육 가이드라인 정리

공감교육의 필요와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 취합.

“공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채움

#### (4) 공감교육과정개발

공감교육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워크숍 선택.

교육과정보다 일상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

예술+공감, 대화+공감, 공감+교육, 상상+공감 의 구성으로 4개의 프로그램 기획.

실행을 통해 운영 경험과 참가자 반응 살펴보기로 함.

#### (5) 공감교육 “공감의 정원” 실행

##### 프로그램

- 내 일상을 공감하는 일주일
- 대화의 식탁
- 공감교육, 낯설게 보기
- 행동하는 공감

##### 진행과정:

- 기획 및 진행: 연구진이 역할 분담하여 프로그램 담당. 하나씩 구체적 기획 및 실행
- 홍보: 페이스북, 집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 내부의사소통: 정기회의 - 주 1회, 콘텐츠 체험, 교육 등 - 주 1회  
페이스북 그룹 활용

## 6. 수행결과 자체평가

- 계획서에 작성하였던 목적과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 계획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실행함.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실행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2개월 시간의 한계. 좀 더 집중해서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다보니 팀 내에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 실행을 통한 경험 역시 중요한 부분 인 만큼 준비에 대한 수고를 줄이고 실행해보는 경험을 가짐. 실행을 통한 경험은 다음 계획을 하는데 생생한 도움이 되었음.
  - 전문가 세미나, 콘텐츠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통찰이 있었음.
- 아이디어 실행 성과(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 기대효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공감에 대한 특별한 과정보다 일상에서 공감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접근
- 아이디어 실행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과 아쉬움이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의미하기 위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기간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 팀원들의 한 줄 평가
  - 류광해 : 아쉬움도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짧은 시간에 공감하는, 공감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 프로그램의 실행이었습니다!!
  - 신은희 :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필요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움직임과 그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은 경험과 배움이 되었습니다.
  - 유소영 :
  - 정승구 : 작은 행사였지만 기획한 아이디어를 실행까지 했다는 데 만족하고, 앞으로 해나갈 발전이 기대됩니다.
  - 박한나 : 도서와 강의, 체험을 통해서 공감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유익했고 시간을 갖고 공감교육을 진행했다라면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기타의견